

광주시, 청년창업기업 '맞춤 성장' 지원 나선다

기술고도화 자금·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차등지급

광주시는 지역 청년창업기업들의 맞춤형 성장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기업 기술고도화 자금 지원 사업'과 '청년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가 청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맞춤형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의 하나로 참여 기업을 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

준 창업 3년 이내이면서 대표자가 30세 이하인 광주시 소재 청년창업기업이다.

광주시는 공모를 통해 청년창업기업 기술고도화자금 지원 사업 6개 사, 청년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8개 사 등 총 14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기업 기술고도화자금 지원사업'은 발표 평가를 통해 잠재력이 높은 우수 청년창업기업 6개 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협약 체결부터 11월까지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기술 이전, 특허·인증,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소 1

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차등 지원받는다.

'청년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은 현재 '아이플렉스 광주'에 입주해 있는 22개 기업과 별개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검증받은 청년창업기업 8개 사의 평가를 통해 추가 모집한다.

광주시는 추가 선정된 8개 사를 포함해 총 30개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육성기관(엑셀러레이터) 등 산업계 전문가들을 매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 진단·검증,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데모데이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성체계 프로그램을 제공, 청년창업기업의 실질적인 고속 성장을 이끈다.

광주시는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주거 지원 사업도 활발히 병행하고 있다.

'아이플렉스 광주' 내 사무 공간을 활용해 지역 청년창업기업 22개 사에 무상 입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공실이 발생할 경우 수시 모집을 진행해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통해 무주택 청년 창업가 7개 사에 복구 용병동 소재의 창업지원주

택인 '창업허여가'를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 또는 아이플렉스 광주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062-239-9613)에 문의하면 된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광주지역 청년창업기업들이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기술적 한계, 투자 유치, 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광주 '스트리트 컬처 페스타' 열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 댄스 축제 '2026 광주 스트리트 컬처 페스타'의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배틀라인업자'가 열려 전국에서 모인 댄서들이 화려한 춤을 뽐내고 있다. /조영권기자

도, 서류없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편의 ↑

정보제공 동의만으로도 조회 가능 지난해 3만4천명에 토지정보 제공

전남도는 7일 "조상 명의를 숨은 토지를 복잡한 증명서류 없이 동의서 한 장 만으로 손쉽게 찾도록 서비스를 개선, 도민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만 조상땅 찾기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서툰 고령층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람 동의만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해 서비스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비스 개선은 도민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만 1만6천건을 접수했으며 이를 통해 3만4천명에게 총 32만 필지에 달하는 감춰진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서비스 간소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를 인지하지 못한 시골 땅이나 부모님 명의의 농지가 있는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가공간정보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성식 토지관리과장은 "도민 누구나 행정장벽 없이 편리하게 토지 정보를 이용하도록 서비스 문턱을 낮췄다"며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장마철 빗물받이 막힘·덮임 신고하세요"

市, 30일까지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광주시는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맞아 8일부터 30일까지 3주 간 시민 참여형 '우리동네 빗물받이 정비 신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호우·태풍, 산사태, 폭염, 물놀이 안전 등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시민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막힘·덮임 등 빗물받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게 해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벤트를 통해 침수 위험요소를 사

전에 정비하는 것은 물론 시민 안전의식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서 광주지역 빗물받이 막힘·덮임 현장을 신고한 뒤 발급된 신고번호와 경품 발송용 개인정보를 이벤트 페이지(naver.me/GT44eJ C)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참여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35명을 선정해 안전꾸러미를 제공한다. 안전꾸러미는 휴대용 경보기, 모기 기피제 등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용품으로 구성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5월 '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이벤트'를 운영하고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분야 위험요소 신고를 접수해 40명에게 경품을 제공했다. /변은진기자

전남 탄소중립 실천 확산 민·관 협력 다짐

道, 곡성서 환경의날 기념행사 성료

전남도는 지난 5일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등 야외트홀에서 제3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환경의 가치를 되새기며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을 다짐했다.

전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기후 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을 주제로 환경공공자 표창, 기념식, 환경실천 퍼포먼스, 환경교육·체험 등이 진행됐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 기관·단체 관계자를 격려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생활 속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의 장으로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빈번한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 심각성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행사는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열려 환경정책과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전남도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부문 친환경 전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계획이다.

방중진 환경정책과장은 "도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

